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 태풍 가운데 들은 음성

(행 27:9-26)

## The Voice Heard During the Typhoon

(Act 27:9-26)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들은 매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At the time when Paul the Apostle was active in Rome, there was the law of which people worshiped their emperor. That is why Christians who only worshiped God and refused to worship the emperor were persecuted. Nevertheless, Apostle Paul spread the Gospel in Rome as much as God allowed him to do.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증거 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됩니다.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항해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행 27:14).

There were many people who wanted to kill Paul who preached the Gospel boldly and strongly. And then, Paul was sent to trial before the emperor Caesar. While they sailed to reach Italy, the ship that the Apostle Paul was on board was caught by a terrible typhoon called the Northeaster.

“Before a very long, a wind of hurricane force, called the Northeaster, swept down from the island” (Act 27:14).

유라굴로는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항해가 시작되기 전 바울은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항해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행 27:10). 그는 기도하면서 이번 항해를 통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The Northeaster, as it says, is a wind with hurricane force. Before sailing Paul already warned that their sail would threaten our lives (Act 27:10). By praying, Paul knew that their voyage was going to be disastrous and bring great loss, he told this fact to the centurion Julius. But they did not believe Paul’s word but the owner of the ship. And they enforced their voyage.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한채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태풍 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Those who met a violet gale on ship were almost plunged in despair. They lost all their property, and lost their hope to live life of which they did not eat for days. The Apostle Paul opened his mouth, “do not be afraid.” How could he say such a hope to those who were subject to death during the violet gale?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3-24).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Act 27:23-24).

바울이 안심하라는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The basis that Paul could say boldly ‘Don’t be afraid’ is God. The reason why the Apostle Paul could say “Don’t be afraid.” to those who were waiting the death without having any desire is God.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5).

“So keep up your courage, th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Act 27:25).

그는 또 다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 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He said again, “Keep up your courage. And he explained,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Apostle Paul gave the light of hope and light of life. Christians who believe Jesus Christ must be able to say just like the Apostle Paul “Keep up your courage.” toward the worl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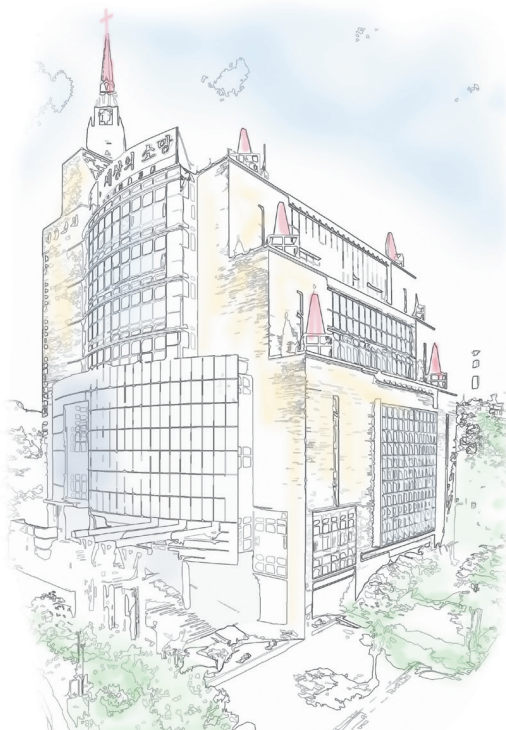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했다고, 그 길이 가장 지혜로웠다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웠고, 그 길이 가장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의 길이였다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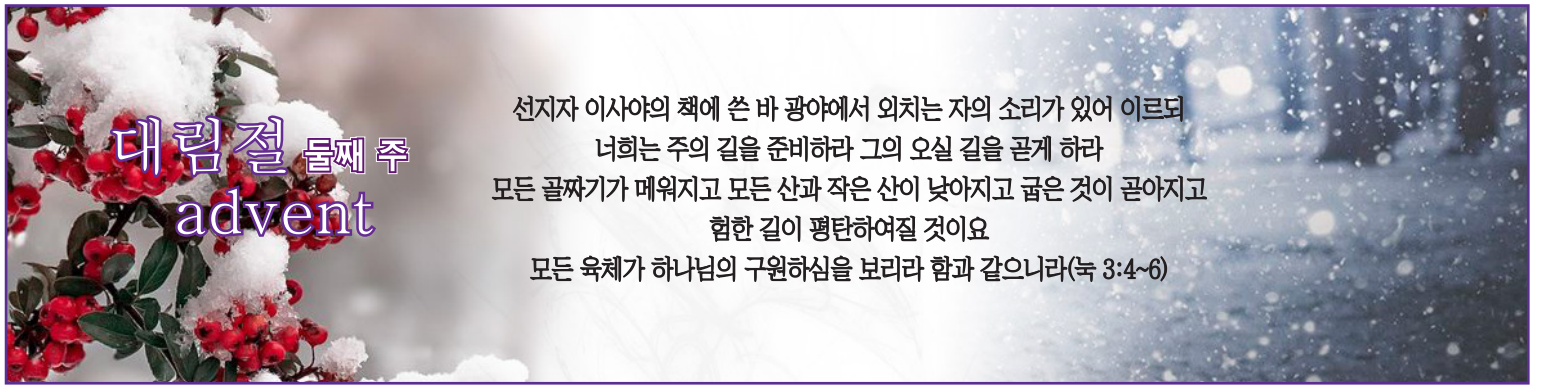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Now, we are going to Rome which is allowed to us. We may be stuffy and may meet a violet gale. But we at last may confess like this. That way is the most safe, the most wise, the most beautiful, and that way is God’s way in which the fruit of the Gospel can bear fully.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 sincerely pray that such confession of the Apostle will be our confe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호산나대학, 신입생 모집

원서 마감: 12월 9일(금) 오후 6시 / 합격자 발표: 19일(월) 오후 1시 예정

호산나학교는 우리 교회의 설립 이래 한결같이 품어온 교회목표와 비전이 가시적 열매로 맺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이루기 위해 쉽없이 기도해오던 중 2004년 11월 28일 이종윤 원로목사가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에 제시한 3대 비전으로 목표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호산나학교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맞보게 하고, 사회인으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발전적 형태의 장애인 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이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

비하는 호산나대학에서 2017년 신입생들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1월 28일(월)~12월 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입학시험은 14일(수)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19일(월) 오후 1시이다.

자격은 2017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은 자다.

자세한 내용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http://www.hosannacollege.net>)를 참조 바란다.



### B.M.W.운동

Bus Metro Walking

##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인간의 지식은 학교, 가정, 사회를 통해 세기 동안 전달되어 왔다. 배움의 장소로서의 학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 학교는 히랍의 아테네에서 주전 387년에 플라토(Plato) 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선생 소크라테스(Socrates)처럼 학생을 공설운동장에서 모집하여 당시 체육인의 영웅 아카데미우스(Academus)의 이름을 따서 아카데미(Academy)를 개설했다. 후에 플라토는 이 아카데미를 자기 집 정원에 개설하였고, 후에 후계자 스페우니푸스(Speunippus)에게 자기 집을 물려줌으로 최초의 공적 배움의 집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는 플라토의 학교와는 다르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학교를 세우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예수님의 학교 학생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았다.

1.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받아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초청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것은 제자여로의 부름이다. 이 초청은 나이, 국적, 성품, 교육배경, 재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오라는 초청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온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초청의 대상이 된다.

육신이 연약한 이, 삶이 고달픈 이, 특별히 여겨서 말한 것은 율법 아래서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의 주가 필요한 이를 말한다.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분명하다. 유대인들에 의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설교했으나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 이 회개치 않았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자신을 어린아이로 평가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라고 하셨다.

타산적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앎고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진정한 의미로 거듭난 신자가 얼마나 될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수 천 수만 명의 교인 수, 천문학적 현금액수, 잘 짜여진 조직과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할 수는 없다.

당신에게는 바른 신관과 바른 하나님 지식이 있는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성별된 삶이 있는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 민감하여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섰는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르게 배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다음 주 계속)



유치부 - 달란트잔치를 마치고

# 달란트가 뭐예요?



이성우 집사 (유치부 부장)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면 응답해주세요~

매주 702호 유치부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매주 목사님과 교사들이 준비한 인형극에 몰입한 아이들은 거지나 사로도 되고, 바울 사도도 되어 기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과 활동! 특별활동! 성경암송! 성탄 발표곡! 무엇이든지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하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기뻐합니다. 장난치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떠들고 싶은 마음을 꼭꼭 잡아가며 열심히 따라해 주는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모두 함께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달란트가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며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알려 주셨고, 유치부 밴드를 통해 한 달 동안 달란트를 모을 계획과 결석을 해서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 당일 날 속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님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단다.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들으며, 최선을 다한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한 개 두 개 달란트 통장에 한 달 동안 모아 드디어 11월 27일 주일 달란트 잔치를 하였습니다. 각자 열심히 모은 달란트 통장에 모은 달란트를 달란트 은행에서 초콜릿 코인과 종이 달란트 돈으로 바꾼 아이들은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에게 간식 쿠폰을, 어떤 아이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간식을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핫도그를 가족 수만큼 사서 가져가며 “선생님 제가 모은 달란트로 산거예요.”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달란트 잔치를 통해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1국 총동원주일을 마치고



## 하추 특별한 파티!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6)

교육1국은 잃은 양 찾기를 목표로 ‘총동원주일’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 유아부 총동원주일

유아부는 예년의 새생명축제 기간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간으로 삼고, 10월 한 달 간 “보고 싶다, 친구야!”라는 주제로 매 주일 다양한 순서를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하는 어린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애니메이션 감상·비누방울 놀이·부모님의 작은 음악회·신나는 요리교실·그리운 친구 초청 잔치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발걸음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 나온 어린이가 가정이 교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평소 애정 어린 유아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작으나마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 \* 유치부 총동원주일

유치부의 총동원주일은 11월 27일 유치1부와 유치2부 예배 후에 달란트 잔치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유치부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암송을 한 어린이 그리고 성탄절 발표곡을 열심히 연습한 어린이들에게 칭찬과 함께 주었던 달란트를 달란트 통장에 꼬박 꼬박 저축하게 했다가 그것을 달란트 은행에서 초콜릿 코인으로 바꿔주어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 결석자들도 유치부에 나오고 친지 집에 방문한 친구도 함께 참여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두 손 가득 들려있는 선물들은 그 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구입한 물건들이라 더 소중한 뜻 깊은 유치부 총동원 주일과 달란트 잔치가 되었다.

### \* 유년부 총동원주일

유년부는 11월 27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학부모초청예배를 드렸다. 1부는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고, 2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둘러 모여 ‘예수님 찾으러 왔단다’라는

놀이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불러 보았다.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라는 주제로 ‘나만의 한지등’을 만들어 마음의 불을 밝히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였다.

### \* 초등부 & 유초등연합2부 총동원주일

11월 27일 오전9시 초등부와 오전 11시 20분 유초등연합2부는 “아주 특별한 파티-예수님을 기다려요”라는 주제로 총동원주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교회 설립기념주일이자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특별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었다. 그래서 초등부와 유초등연합2부는 친구를 초청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달란트 파티로 이 날을 기쁘게 기념하였다. 초등부는 5개의 놀이코너와 선물코너, 간식코너가 있었고,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가져온 아나바다 물품으로 나눔장터가 열렸다. 유초등연합2부는 2개의 놀이코너와 2개의 만들기코너 그리고 선물코너와 간식코너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결석하던 어린이들과 새친구 얼굴이 많이 보였고 어린이들의 밝은 얼굴에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호산나대학 추수감사절 행사

# 지금까지 은혜 감사!

노정미 교수  
(호산나대학)

감사는 삶의 비타민이며 삶을 바꾸는 고백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을 더 빛나고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목요일에는 하나님께서 호산나대학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학생들과 전교직원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아 아서인지 10년 전 감사의 제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본교 정문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요한복음 11:40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학생들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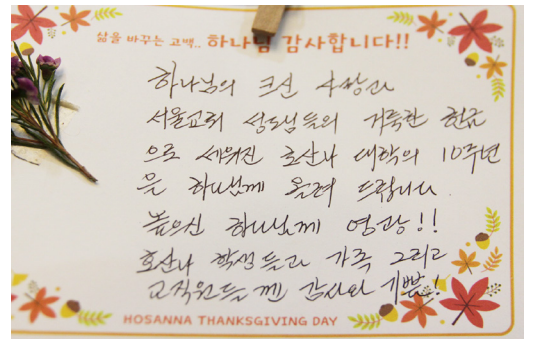
영광 드러내시길 간절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추수감사예배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감사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호산나 학생들은 순수한 마음만큼 감사의 제목도 진솔했습니다. [1위 : 호산나 대학 다니고 있



음에 감사, 2위 :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심 감사, 3위 : 취업과 자격증 취득 감사, 기타 : 이성 친구 교체, 힘든 일 극복하게 하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

학생들이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작아지고 소망조차 갖기 어렵고 감사보다는 불평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감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상처와 자신감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나 취업 후에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어려워하는데, 이번 감사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즐겁게 생활하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학생들과 다과 시간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떡과 차를 마시며, 감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호산나대학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호산나대학을 있게 해준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4일(주) 섬김의 교회 주일예배 설교한다. 9일(금) 포항시민애국시민대회에서 개회사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리브가전도회 (124) 한나전도회(1211)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사랑부 전시회

지난 주일(11월 27일) 사랑부(부장 : 박광옥 집사)는 교회설립 제2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특별활동 결과를 전시하였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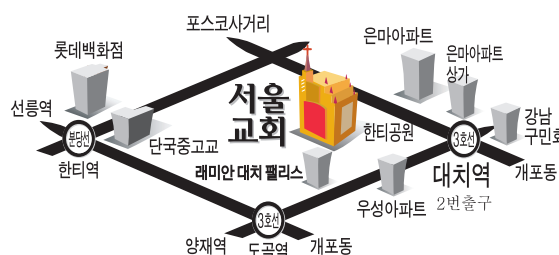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림절을 통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2.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3.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II, III, IV 층
	찬양예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